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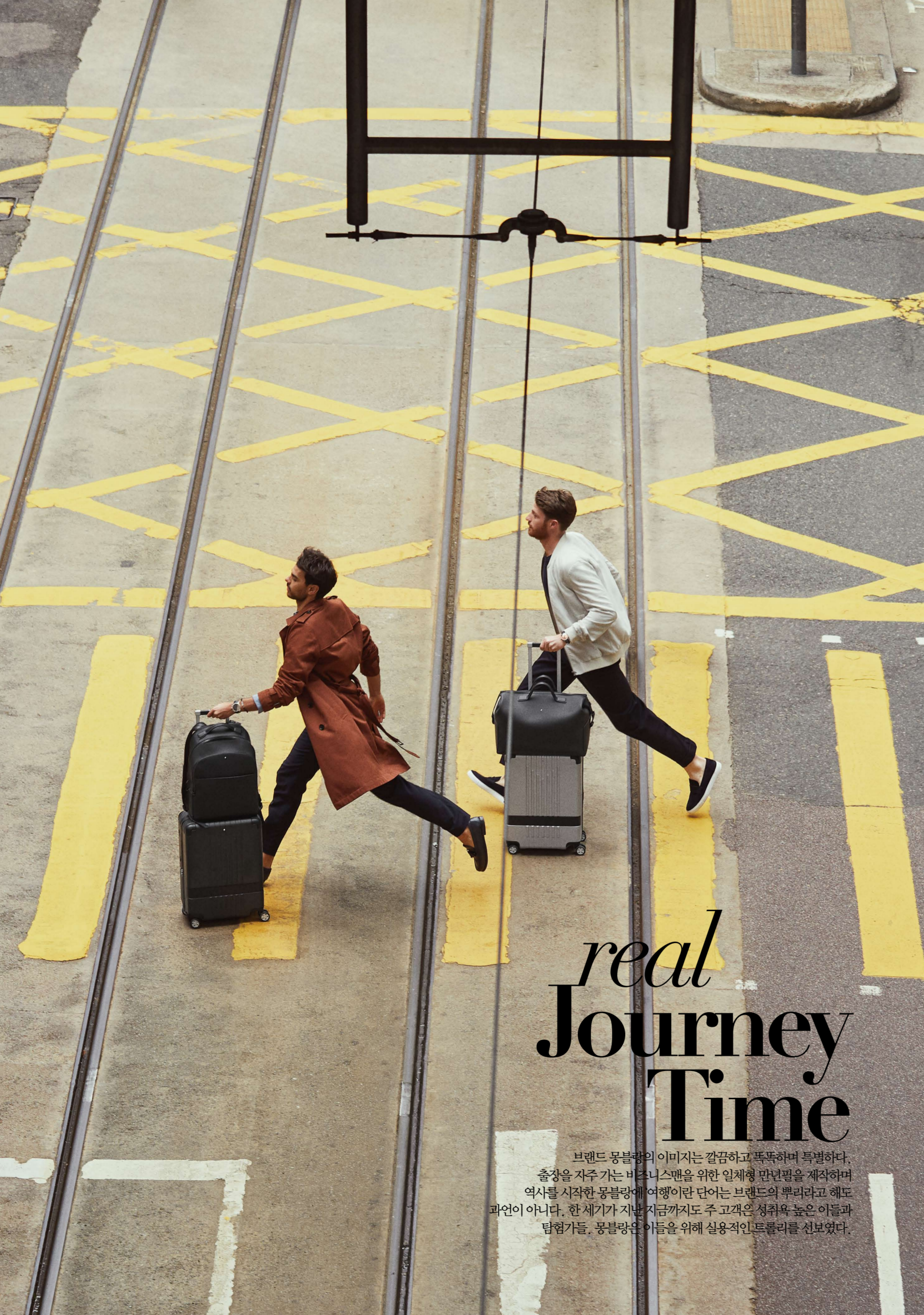
Style

조선일보

FALL/WINTER
2019



MONT
BLANC 



real Journey Time

브랜드 몽블랑의 이미지는 깔끔하고 독특하며 특별하다. 출장을 자주 가는 비즈니스맨을 위한 일체형 만년필을 제작하며 역사를 시작한 몽블랑에 '여행'이란 단어는 브랜드의 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주 고객은 성취욕 높은 이들과 탐험가들. 몽블랑은 이들을 위해 실용적인 트롤리를 선보였다.

1 인공의 '0'을 경험과 관련 있는 두 브랜드, 몽블랑과 피렐리가 협업해 선보이는 #MY4810 몽블랑 X 피렐리 리미티드 에디션 트롤리. 2 럭셔리 비즈니스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도시 여행자의 세련된 감성을 담았다. #MY4810 나이트플라이트 트롤리 블랙 컬러와 실버 컬러를 매치한 모델들. 3-4 몽블랑은 여행을 위한 트롤리는 물론, 도전하고 경험하고 성취하는 현대인들을 위한 다양한 가죽 제품을 선보인다. 7 #MY4810 나이트플라이트 트롤리 컬러 중 실버 컬러 버전. 앞 포켓이 있는 캐빈 사이즈로 실용성이 돋보인다. 경량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제작했으며 360도 회전하는 휠, 조절할 수 있는 멀티 스톱 핸들 바를 닮았다.



여행의 시작, 트롤리

누가 뭐라 해도 여행은 짐 싸기부터 시작된다. 어떤 도시를 방문하고, 무엇을 즐길 것인가, 즉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짐을 싸는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 특히 휴양지 여행이 아닌, 업무를 위한 출장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수트부터 서류, 전자 제품, 필기구까지 챙겨야 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닌 비즈니스맨에게 콤팩트하고 심플하며 무엇보다 똑똑한 트롤리는 필수. 실용성은 물론 스타일까지 생각하는 이들에게 트롤리 선택이 중요한 이유다. 몽블랑이 생각하는 탐험은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곳을 찾아가서 살펴보고 조사한다는 사전적 의미만 내포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미지의 세계를 찾는 마음과 탐구심, 새로운 장소에서 문화를 흡수하고 즐기는 포용력, 개인적인 목표에 대한 열정과 도전 등 정신적인 의미도 포함한다. 그런 몽블랑에 '여행'은 탐험을 통해 얻는 성취감과 성장을 뜻하기도. 일찍부터 비즈니스맨의 심리를 꿰뚫어본 똑똑한 몽블랑은 중요한 순간에 수트 잔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 멋진 사인을 해야 하는 이들을 위해 20세기 초 일체형 만년필을 선보였다. 잉크 충전도 쉽고, 휴대하기도 편해 당시 큰 인기를 끌었음은 당연한 결과. 이번에는 언제나 열정을 갖는 일에도 전하는 탐험가라 할 수 있는 이들을 위해 특별한 트롤리를 선보였다.

주목해야 할 3개의 트롤리

지난 4월 베를린에서는 몽블랑의 새로운 트래블 캠페인 론칭 이벤트가 열렸다. 세계 각지의 여행자들이 새로운 곳을 탐험하며 세상과 공감하고 새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몽블랑이 평생의 동반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담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관계를 맺는다(reconnect)는 것을 주제로 몽블랑의 다양한 여행 컬렉션이 소개되었는데, 그중에서도 트롤리 제품이 단연 시선을 끌었다. 그중 눈여겨볼 트롤리 3개는 2018년에 첫선을 보인 #MY4810 나이트플라이트 트롤리 블랙 컬러와 올해 4월에 공개된 #MY4810 나이트플라이트 트롤리 실버 컬러, 그리고 #MY4810 몽블랑 X 피렐리 리미티드 에디션 트롤리다.

먼저 #MY4810 나이트플라이트 트롤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행자나 모험가들에게 꼭 필요한 다재다능하고 믿을 수 있는 여행 제품이다. 경량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를 자유자재로 요리하는 이탈리아 정인의 손맛이 정교하게 손잡이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멀티 스톱 바, 스마트 디바이스 사용이 많은 여행자를 위한 보조 배터리 수납 옵션 등을 더했다. 측면 레더 인서트에는 이니셜을 새겨 자신만의 특별한 트롤리를 제작하도록 했고, 360도 회전하는 볼 베어링 휠로 특별함과 실용성의 밸런스도 맞췄다. 이런 기본 디자인에 세련된 컬러 변화를 주어 사용자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신의 한 수다. #MY4810 몽블랑 X 피렐리 리미티드 에디션은 지난 4월 중순, 상하이에서 열린 포뮬러 원 하이네켄 중국 그



랑프리 2019(FORMULA 1 HEINEKEN CHINESE GRAND PRIX 2019) 기간 중 공개된 제품. 이탈리아의 럭셔리 타이어 메이커 피렐리사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화제가 되었는데, 몽블랑과 피렐리는 모두 이동성(mobility)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더욱 편안한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꾸준히 글로벌 시장을 확장하며 각자의 분야에서 리더로 자리매김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MY4810 트롤리 캐빈과 포켓이 달린 #MY4810 트롤리 캐빈, 총 두 사이즈로 제작되며 5천 점 한 정 판매한다. #MY4810 컬렉션 제품은 일관된 디자인과 성능을 갖추고있는데 피렐리와의 콜라보레이션에는 피렐리 경주용 타이어에서 영감을 받은 옐로 컬러 피렐리 레터링과 고성능 360도 볼 베어링 휠, 고무 레더로 제작한 타이어 패턴의 레더 트러밍과 옐로 라지치 태그, 피렐리 트레이드마크로 새로운 시그니처를 더해 가치를 높였다. 문의 1670-4810 에디터 장라윤



#MY4810 나이트플라이트
트롤리 콤팩트 캐빈 사이즈
35X55X21cm 85만원,
자름 42mm 스틸 케이스의
스마트 워치 몽블랑 시계 2
1백27만원 모두 몽블랑.



URBAN TRAVELER

걷고, 먹고, 메모하고, 음악 듣고, 사진도 찍는 박서준.
주어진 것을 온전히 즐기는 도시 여행자의 하루를 담았다.
photographed by kim cham

카본 섬유 프레임 가죽과
무광 메탈이 균형을 이루는
익스트림 2.0 백팩 라지 사이즈
1백22만원, 마인스탁스틱
소프트 그레이인 익스테리어 캐리어
23만원, 자름 40mm 스틸
케이스에 브라운 베젤로 완성한
반트지환 느낌의 1858 오토메틱
워치 3백33만원 모두 몽블랑.



#MY4810 나이트플라이트
 트롤리 캐빈 사이즈 38X55X23cm
 85만원, 외부 보석으로 실용성을
 더한 #MY4810 나이트플라이트
 백팩 미디엄 사이즈 30만원
 모두 몽블랑.



#MY4810 나이트플라이트 트롤리 캐빈 사이즈 38X55X23cm 85만원, #MY4810 나이트플라이트 백팩 미디엄 사이즈 30만원,
 견고한 블랙 나노 스트랩의 케이스 지름 42mm 1858 오토메틱 크로노그래프 워치 5백33만원, 사피아노 레더 캐버의 #146 마야 블루 노트와 #146 페트롤 블루 노트 각 8만6천원, 스티워커 메탈 만년필 1백2만원 모두 몽블랑.



박서준이 들고 있는 #MY4810 나이트플라이트 트롤리 캐빈 사이즈 38X55X23cm 85만원, 차 트렁크에 들어가 있는 #MY4810 나이트플라이트 트롤리 미디엄 스티울 사이즈 45X67X26cm 1백13만원,
 익스트림 2.0 백팩 라지 사이즈 1백32만원, 스모크 샌페인 컬러 다이얼이 돋보이는 케이스 지름 42mm의 1858 오토메틱 크로노그래프 워치 5백26만원 모두 몽블랑.

스페셜 서펜트 마카주를 그려넣은
#MY4810 나이트플라이트
트롤리 미디엄 스펀 사이즈
45x67x26cm 1백13만원,
브론즈 케이스 지름 42mm의
1858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워치
6백28만원 모두 **몽블랑**.



익스트림 2.0 백백 라지 사이즈 1백32만원, 익스트림 2.0 여권 지갑 25만원, 1858 오토매틱 워치 3백33만원,
마이스티스틱 스포츠그레인 미스테리어스 키홀더 23만원 모두 **몽블랑**.



#MY4810 나이트플라이트 트롤리 미디엄 스펀 사이즈 45x67x26cm 1백13만원,
익스트림 2.0 도큐먼트 케이스 울트라 슬림 1백35만원, 1858 오토매틱 워치 3백33만원 모두 **몽블랑**.



#MY4810 나이트플라이트 트롤리
미디엄 스펀 사이즈 45x67x26cm
1백13만원, 익스트림 2.0 도큐먼트
케이스 울트라 슬림 1백35만원, 1858
오토매틱 워치 3백33만원 모두 **몽블랑**.



남녀 모두 착용 가능한 케이스 지름 42mm의 스마트 워치 몽블랑 서킷 2 1백27만원 몽블랑.



마이스타스틱 어반
지퍼 클러치 86만원,
1858 지오스피어
리미티드 에디션 워치
7백87만원 모두 몽블랑.

#MY4810 나이트플라이트 트롤리 캐빈 사이즈 38X55X23cm 86만원, 마이스타스틱 어반 지퍼 클러치 86만원,
1858 오토매틱 워치 3백33만원, 내비게이터 프레임 메탈 선글라스 55만5천원 모두 몽블랑.



몽블랑과 럭셔리 타이머 메이커
피렐리의 합작으로 선보이는
#MY4810 몽블랑X피렐리 리미티드
에디션 트롤리 38X55X23cm
99만원, 7입개, 심박수 측정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스마트 워치
몽블랑 서킷 2 1백27만원
모두 몽블랑.

문의 몽블랑 1670-4810

헤어 **엄정미**
메이크업 **달래**
스타일리스트 **양혜림**
에디터 **장미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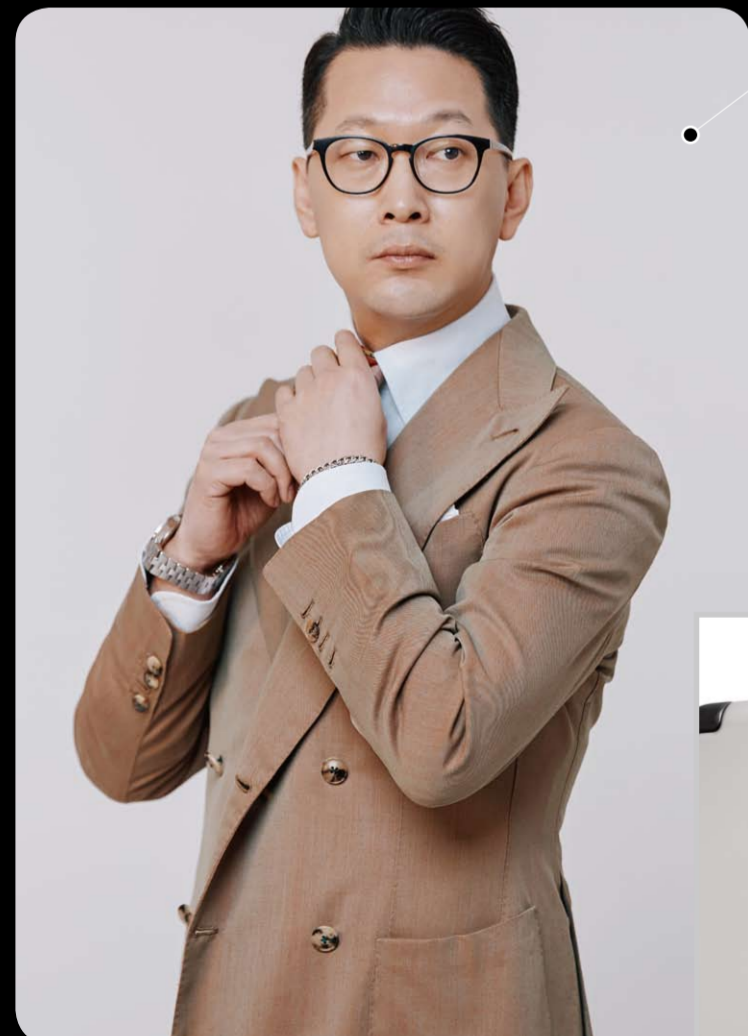


블랙과 실버컬러의 #MY4810 나이트플라이트 트롤리 캐빈 사이즈, 미디엄 스타일 사이즈 모델과 #MY4810 나이트플라이트 플랩 백팩.

the spirit of Travel

기존의 여행용 가방과는 확연히 다르다. 출장과 여행길의 이상적 동반자. 몽블랑 #MY4810 나이트플라이트 트롤리 컬렉션은 작은 디테일이 만들어낸 큰 차이를 경험할 수 있다. 이를 애용하는 인플루언서 3인의 이야기를 통해 그 면면을 소개한다.

늘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도시의 탐험가와 모험가를 위해 탄생한 몽블랑의 #MY4810 나이트플라이트 트롤리 컬렉션. 여행 가방이 갖춰야 할 내구성, 실용성은 물론 뛰어난 기능과 세련된 디자인까지 겸비했다. 당일 여정에 적당한 파일럿 케이스, 컴팩트 캐빈 사이즈부터 장거리 여행에 적합한 미디엄 스타일, 미디엄 라지 사이즈까지, 총 여섯 가지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로 선보이며 실버, 블랙 컬러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무엇보다 사용자 개개인의 취향과 편의를 고려한 정교한 설계와 디테일, 장식 등이 돋보인다.



남훈(크리에이티브 디렉터, @alannam1)

올해 7월, 이탈리아인이 가장 사랑하는 휴양지 중 하나인 스페인 포르멘테라섬을 방문했습니다. 밀라노에서 1시간 30분가량 비행기를 타고 이비자에 도착해 또다시 페리를 타고 이동하는 여정이었어요. 5일간 머물 예정이라 짐이 적지 않은 편이었지만 최대한 콤팩트하게 꾸려야 했고, 특히 비행기와 페리 안에 실을 트롤리 역시 가볍고 작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유한 다양한 여행 가방 중 자연스럽게 몽블랑의 #MY4810을 선택했죠. 아무리 고급 브랜드의 트롤리라고 해도 무거운 가방을 들고 출장이나 여행을 떠나는 건 몹시 힘든 일이지 않아요. 직접 핸드 캐리하지 않는다 해도 지나치게 고급스럽거나 민감한 소재라면 수평적으로 스크래치가 나게 마련이구요. 그런데 #MY4810은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라 그 견고함에 견주어볼 때 매우 가볍고 상처도 잘 나지 않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손의 방향에 따라 부드럽게 움직이며 360도 회전하는 볼 베어링 휠은 트롤리를 끌어보는 즉시 본능적으로 깨닫게 해줍니다. 이 제품이 여행에 무거운 짐이 아니라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사실은요.

1 초경량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트롤리 전면엔 몽블랑의 시그니처인 엠블럼과 'M' 모티브 그루브 패턴을 더했다. 2 브랜드 로고를 울각으로 새겨 넣은 고급스러운 레더 트리밍. 3 360도 회전하는 볼 베어링으로 편안하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휠.



신동현(라이프스타일 칼럼니스트, @donato_shin)

업무상 출장이 잦아 백팩보다는 여행용 가방을 자주 사용합니다. 일정이나 짐의 부피에 따라 각기 다른 다양한 여행용 가방을 갖고 있지만, 가장 가벼운 부분을 골여주는 제품이 없었어요. 이틀이나 사흘 정도의 짧은 출장에 함께할 가벼운 가방은 특히, 단기 출장일수록 보장에 신경 써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늘 답례였습니다. 셔츠를 트롤리에 넣으면 구겨지기 심상이라 보스텐백에 넣어 다니는데, 계속 조심해야 하는 데다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메고 다녀야 하는 것도 스트레스였죠. 몽블랑의 캐빈 사이즈 트롤리를 열어보자마자 유레카를 외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도톰한 격벽 덕분에 옷을 넣어도 구겨지지 않는 구조. 가방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작은 가방에 격벽까지 더하면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용량이 적어 지니 고민이었겠지만, 원래 명품에는 이런 디테일이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이 가방이야말로 출장을 자주 다니는 사람이 만든, 출장을 자주 다니는 사람을 위한 가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2 지퍼가 달린 크고 작은 포켓, 램프 보관 공간을 포함해 스마트하고 실용적인 수납공간이 돋보이는 컴팩트 캐빈 사이즈 트롤리 내부. 3 #MY4810 컴팩트 캐빈과 캐빈 사이즈 모델은 트롤리 후면에 별도의 보조 배터리 수납공간이 위치한다.



이 올리비아(교육인 & 국제 MC, @olivia_in_korea)

몽블랑의 #MY4810을 사용하며 가장 마음에 든 부분은 다양한 길이로 늘어나는 안정적인 바 익스텐션을 더한 핸들이었어요. 멀티 스톱 시스템을 갖춘 덕분에 꼭 정해진 구간이 아니더라도 원하는 만큼 높이를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었고, 저와 남편, 아이 모두 각자의 키에 알맞게 맞춰가며 트롤리를 같이 사용했어요. 핸들에 덧댄 가죽 디테일은 또 어땀고요. 부드럽고 편안한 그림을 고려한 세심함이 느껴지는 부분이지요. 뿐만 아니라 여행 가방은 브랜드마다 유사한 모양이 많고, 디자인 역시 여타 패션 아이템만큼 다채로운 편이 아니라 작은 액세서리나 포인트 아이템으로 개성을 더하는 게 중요하고 특별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MY4810은 측면에 위치한 컬러 레더 패치 위에 이니셜을 새길 수 있어 오직 나만을 위한 트롤리라는 느낌이 들게 해주죠. 종종 특별한 퍼스널라이즈 서비스를 제공하는 러기지 태그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처럼 작은 요소 하나만으로도 가방에 대한 애정이 배가된답니다.

1 이는 높이 정화하게 손잡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멀티 스톱 바. 2 몽블랑은 고객이 제품을 더욱 특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 기간 동안 이니셜 마카주 서비스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한다. 러기지 태그에 원하는 2~3글자를 새겨 넣을 수 있다. 3 이니셜 인드레이빙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의 필라형 레더 인서트, 블랙, 네이비, 레드 컬러 중 선택 가능하다.



이디너 이베리 포토그래피 박정민(가공)

(위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인류의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하여 우주로 떠난 탐험가의 사진에서 버려진 이롭다운 지구의 모습을 담은 스타워커 컬렉션. 그중 푸른 지구 프린트가 압도적인 블랙 레더 커버의 **스타워커 익스플로레이션 유선 노트 #146**은 15x21cm 크기로 여행 또는 출장 중 휴대하며 아이디어 노트로 사용하기 적당하다. 10만원. 캡 끝부분에 위치한 볼루 컬러의 몽블랑 엠블럼과 투명한 돌이 우주 공간 속 지구를 연상시키는 **스타워커 메탈 만년필**. 정교한 펜촉은 로듐을 코팅한 골드 소재로 몽블랑 엠블럼을 인그레이팅했다. 1백2만원. 브랜드명과 개별 일련 번호를 새겨 넣은 골킴, 고급 블랙 레진 배럴이 특징인 **스타워커 레진 볼펜** 43만원. 모두 **몽블랑**.



(왼쪽부터) 다양한 커본 섬유 프린트 가죽을 사용했으며 매트한 블랙 메탈 디테일과 지퍼가 아우라진 감각적인 디자인의 **몽블랑 인스트림 2.0 리지 백팩**. 메인 수납공간 3개, 프린트 오픈 포켓 1개를 비롯해 내부에는 패딩 처리한 노트북 수납공간과 오픈 포켓, 휴대용 포켓, 지퍼 포켓, 필기구용 루프 등을 갖춰 매우 실용적이다. 1백32만원. 출장을 자주 가는 비즈니스맨을 위해 각종 서류와 액세서리를 보다 손쉽게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고안한 **마이 몽블랑 나이트플라이트 도큐먼트 케이스 슬림**. 페브릭과 레더를 혼용한 가볍고 유연한 소재로 노트북 수납공간, 서류 수납공간, 휴대용 수납 포켓, 필기구용 루프를 비롯해 여러 개의 내·외부 포켓을 갖췄다. 탈착 및 조절 가능한 상단 핸들과 솔더 스트랩, 후면 스트랩 덕분에 다양한 방식으로 들 수 있고, 블랙, 블루, 또는 레드 컬러의 내인 태그를 함께 제공해 원하는 이-셜 인그레이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76만원. 아이코닉한 디자인 요소와 고급스러운 디테일이 아우라진 플라카보네이트 소재의 **#MY 4810 나이트플라이트 트롤리 컬렉션**. 그중 미디엄 스몰 사이즈의 블랙 트롤리는 45x67x26cm의 적당한 크기로 견고한 자소를 스팅 힐과 높이 조절 가능한 확장식 3단 핸들을 갖춰 안정적인 핸들링이 가능하다. 1백13만원. 35x55x21cm 크기의 **#MY 4810 나이트플라이트 트롤리 컴팩트 캐빈 사이즈**. 블랙 레더 트림을 다한 슬러 컬러 플라카보네이트로 모던함을 강조했다. 85만원. 모두 **몽블랑**. 에디터 **이재미**



MONT
BLANC 

Reconnect.



몽블랑 1858 지오스피어

montblanc.com

39° 35' 0.478" S 71° 32' 23.564" W